

David de Silva 박사, 외경, 강의 2, 자세히 살펴보기: First Esdras, Ben Sira, 마카베오 1서 및 2서

© 2024 David DeSilva 및 Ted Hildebrandt

외경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David DeSilva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2, 자세히 살펴보기: 첫 번째 에스드라, 벤 시라, 첫 번째 및 두 번째 마카비입니다.

이번 강의와 다음 강의에서 우리는 외경의 모든 책을 함께 공부할 것입니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인쇄본의 일반적인 순서가 아닌 파격적인 순서를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유래했거나 이스라엘 땅을 주요 위치로 삼는 텍스트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이스라엘 밖의 유대인들의 삶에 더 초점을 맞춘 본문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 프레젠테이션에서는 First Esdras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에스드라스는 우리가 정경 역대상 35~38장, 정경 에스라서, 느헤미야 8장의 자료에서 읽을 수 있는 사건의 대체 버전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오래되고 잘 알려진 버전을 다시 이야기함으로써 이들을 하나로 엮었습니다. First Esdras 버전에서는 요시아 왕 통치 18년에 시작됩니다.

우리는 바벨론 정복을 통해 거기에서 나아가 유다 포로들이 그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키루스의 칙령으로 빨리 감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성전을 재건하려는 다리우스의 의도를 잘 활용하기 위해 재건하라는 명령으로 이동합니다.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에스라의 개혁, 토라 낭독, 토라의 입법에 기초한 법정 설립, 가장 감동적으로 비유대인

아내와 자녀의 이혼과 거부를 통한 백성의 정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 노동조합.

이제, 제가 이전에 언급했던 본문에서 전개되는 First Esdras와 정식 이야기 사이에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First Esdras에는 혼란스러운 일련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작업은 독자의 페이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저자에게는 분명히 편집자가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몇 걸음 뒤로 물러섰다가 같은 땅을 한두 지점에서 다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는 스투바벨이라는 인물을 높이고자 하는 작가의 욕망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표준 버전 이야기와 비교하여 First Esdras의 가장 독특한 점은 세 명의 경호원 경연이 추가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궁중 설화, 즉 우리의 경전에는 아무런 유사점이 없는 디아스포라를 배경으로 한 궁중 설화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왕인 다리우스는 자고 있는 동안 경호원들의 감시를 받고 있으며, 그의 경호원들은 지루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끼리 콘테스트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다리우스의 허락을 얻지는 못했지만 대회의 결과는 이 대회를 열자, 누가 이기든 다리우스 왕이 그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상사가 자고 있는 동안 하기 좋은 콘테스트입니다. 따라서 콘테스트에는 '가장 강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최선의 답변이 포함됩니다. 인간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각 경호원은 다리우스의 베개 밑에 있는 파피루스 조각에 대답을 넣었습니다.

자, 그가 잠에서 깨어나 베개 밑에 포춘 쿠키가 잔뜩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가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다음 왕은 대회에 참가하고 답을 읽습니다. 첫 번째 경호원은 왕이 가장 강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글썄, 아침은 때때로 당신을 어딘가에 데려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경호원은 왜 왕이 가장 강한지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한 이유를 꺼냅니다.

군대는 그의 명령에 따라 움직인다. 야다, 야다, 야다. 두 번째 경호원은 술이 왕보다도 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강한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세 번째 경호원은 먼저 자신에게 속임수를 쓰자고 제안합니다. 그는 두 가지 답을 내놓았다.

그는 먼저 여성이 가장 강하다고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특정 첩이 왕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의 머리에서 왕관을 떼어내고 장난스럽게 그의 얼굴을 때리는 것과 같은 일을 우리 모두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정말로 가장 강력한 것은 진실이라고 말합니다. 진실은 인간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그리고 진실로 그는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인 우주의 신성한 질서에 대해 더 많은 감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대회가 끝나면 분명히 세 번째 경호원이 승리합니다. 그 세 번째 경호원이 스투바벨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원래 독립적인 이야기가 들어왔을 것이고, 그 이야기의 승자는 스투바벨과 동일시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왕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그는 왕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겠다는 그의 통치 초기에 발표한 의도를 실행하고 스투바벨에게 그 일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라고 명하도록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이제 스투바벨을 선두로 진행됩니다. 사건의 혼란스러운 순서는 이 경쟁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이 시점에서 스투바벨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그를 일을 진행시키는 중심 인물로 승격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개편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는 이 이야기에서 스투바벨이 행한 일의 대부분을 우리가 느헤미야에게 돌릴 수 있는 느헤미야의 역할을 완전히 흡수합니다. 저자가 왜 그런

노력을 기울였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 한 가지 제안은 스룹바벨이 다윗의 계보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비록 군주제가 쇠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과 그 성전의 회복에서 그것을 입증하는 저자의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회복되지 않았지만, 다윗의 집을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스룹바벨의 승영과 이 다윗 자손의 성취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First Esdras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또한 주목하는 것은 성전, 성전 활동 및 예배 달력에 더 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과 달리, 이 책을 방금 읽으면 두 번 나타나는 유월절 축제와 초막절 축제의 전례 달력이 작품을 구성하고 실제로 유대인의 삶과 심지어 유대인의 삶에 근본적인 리듬을 제공한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역사. 또한 더 이상 단순한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인 에스라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는데, 그의 토라 개혁과 회복은 현재 제1에스드라의 사역의 정점이다. 느헤미야의 모습이 없다는 것은 이 두 인물, 스룹바벨과 에스라를 훨씬 더 완전하게 높이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이 책의 연대는 대략 기원전 2세기 또는 그보다 약간 늦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히브리어나 아람어 원본이 있었다는 점에 학자들 사이에 점점 더 많은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리스어와 다른 번역본으로 된 사본만 있고 히브리어나 아람어 원본에 대한 물질적 증거는 없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대안으로 큰 가치를 누렸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우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알고 있는 것처럼 확실히 알고 있는 요세푸스는 이 이야기와 유대인의 고대 유물을 관련시키기 때문에 에스드라기 1서의 버전을 그의 출처로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First Esdras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구절은 실제로 세 번째 경호원의 대답이었습니다. 진실은 모든 것을 정복합니다. 또는 그가 나중에 같은 이야기에서 말하는 방식인 '위대하다 진실은 모든 것보다 우월하다'는 사실 서구 사회의 역사 전반에 걸쳐 매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모토였습니다.

문장과 방패에 이 말의 라틴어 버전이 있는 대학을 여전히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에스드라의 관심을 끄는 것, 이것은 물론 정식 이야기와도 공유되지만, 이것이 이 이야기의 절정, 즉 내부 결혼을 통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손을 보존하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집, 에스라가 그들에게 타국인 아내를 내쫓고 이 결합에서 생긴 혼합된 자녀를 버리라고 명령한 이야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깊이 박힌 교훈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경계와 선거구를 정하는 데 있어서 족보를 크게 강조합니다.

귀환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든 손상된 족보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들은 족보를 확립할 수 없었고 더 이상 이스라엘에서 살 곳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제사장이나 레위 계통에 속한다고 믿는 제사장들이 자신의 족보를 입증할 수 없으면 제사장이나 레위 계통의 봉사가 금지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본문은 거룩한 씨가 다른 사람들과 섞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내부와 주변의 경계와 정의 라인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매우 민족 지향적인 텍스트입니다 .

이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텍스트인 벤 시라의 지혜(The Wisdom of Ben Sira)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아마도 외경에서 가장 긴 책일 것이며 또한 초기 유대교와 유대교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벤 시라(Ben Sira)는 예루살렘에 사는 현자였으며, 교육의 집을 운영했습니다. 그는 학생들을 초대했고 아마도 학생들의 가족들로부터 보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문화적 유산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지혜를 훈련하여 그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세계를 안전하고 현명하며 유리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환경, 사업, 정치, 사교 모임, 가족.

Ben Sira를 이해하려면 그의 활동적인 삶의 수십 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기원전 331년경까지 유대에 대한 그리스-마케도니아의 지배권을 확장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몇 년 정도가 걸릴 것인지, 아니면 시간이 걸릴

것인지입니다. 그가 지중해를 건너 이집트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땅도 그의 정복의 일부였음이 분명합니다.

알렉산더와 그의 직계 후계자들은 알렉산더의 자녀가 아니라 그의 장군들이었으며, 그의 왕국을 그들끼리 나누고 세계의 더 큰 부분을 위해 그들끼리 계속 싸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유대와 그 주민들에게 외국 방식이나 문화를 강요하지 않았지만 유대 엘리트 중 상당수는 지배적인 문화의 특성을 더 많이 받아들이고 심지어 시도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점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점점 더 그리스적인 도시로 만들어 예루살렘을 지도에 올리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카베오 1대와 2대와 관련하여 이것에 대해 더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간단히 말하면 벤 시라의 활동적인 경력 동안 그는 엘리트, 자신이 섬기고 있는 자녀, 청소년을 둔 가족이 점점 더 그렇게 끌려가는 것을 지켜봤을 것입니다. 특히 문화, 외모, 명목상에서 점점 더 그리스인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시기는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야만적인 토착 이름을 버리고 그리스 이름을 선호했던 시기인데, 이는 그들이 지배적인 문화에 그들 중 하나로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도 이런 경향이 커지는 것을 지켜봤을 것이고, 그 자신도 그런 경향에 대해 매우 조심스러웠고, 어떤 점에서는 그 경향에 격렬히 반대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진보적인 분위기에서 보수주의를 요구했습니다. 물론 벤 시라(Ben Sira)는 기원전 200년경에 유대에서 가르쳤고, 히브리어로 글을 썼으며, 사실 그는 자신의 커리큘럼, 즉 커리큘럼의 가장 좋은 순간을 후세를 위해 보존했습니다.

이 책은 나중에 기원전 132년경에 그의 손자에 의해 그리스어로 번역되었는데, 손자는 할아버지의 지혜를 이집트의 유대인 공동체, 아마도 알렉산드리아로 가져갔고 그곳의 유대인 공동체에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그리스어로 번역했습니다. 많은 영어 번역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은 대체로 벤 시라(Ben Sira)의 그리스어 버전입니다. 하지만 이 책의 약 3분의 2, 아마도 이 시점에는 더 많은 부분이 히브리어 사본에서 복구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약 4~5장으로 구성된 끈이 마사다에서 발견되었고, 벤 시라 두루마리는 마사다에서 발견되었으며, 그 중 상당 부분은 카이로 회당의 낡은 사본 창고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Ben Sira의 원본 버전에 대해 생각하고 심지어 손자가 히브리어에서 그리스어로 이동하면서 무엇을 했는지 검토하기 위한 일부 텍스트 기반, 일부 원고 기반이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이것이 일종의 여담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Ben Sira에 대한 프롤로그의 손자는 번역 자체에 대한 흥미로운 창을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그 프롤로그에서 그는 할아버지의 지혜와 독자의 만남에 도입한 거리에 대해 기본적으로 사과하기 때문입니다. , 기본적으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그리스어 표현은 히브리어의 원래 표현과 동일한 힘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번역에서 이 거리를 인정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칠십인역이라는 용어로 묶는 헬라어 번역의 신성한 책들, 심지어 우리의 신성한 책들, 율법서, 선지자서 및 기타 기록들까지도 말합니다. , 그리스어로 읽을 때 원래 히브리어에서와 같은 힘을 갖지 않습니다. 따라서 번역이 변한다는 것을 조기에 인식하면 아무리 부지런히 노력해도 번역은 번역되는 텍스트를 변화시킵니다. Ben Sira, 주요 주제로 돌아가서 Ben Sira 자신은 토라를 준수하는 삶의 방식에 대한 제자의 헌신을 보존하려고 노력하는 의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진전이 있었습니다. 더 큰 세계, 헬레니즘 세계, 그리스 지혜, 그리고 이 모든 땅을 하나의 제국 아래 통합함으로써 접근하기가 더 쉬워진 다른 지혜의 흐름으로부터 배울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그것이 우리를 순종에서 벗어나 조상의 생활 방식을 준수하도록 이끌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엘리트들이 명예를 향한 길은 점점 더 그리스 세계에 동화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벤 시라는 계약에 대한 충성심이 명예로운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표시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

그래서 우리는 벤 시라 10장에서 누구의 후손이 영예를 얻을 가치가 있는지를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의 자손이 존경받을 가치가 없습니까? 계명을 어기는 자들입니다. 가족 중에서는 지도자가 존경을 받을 만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의 눈에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부자와 귀한 자, 가난한 자의 영광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군주와 재판관과 통치자는 존귀하나 그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보다 큰 자는 없느니라. 따라서 이 구절에서 벤 시라는 궁극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세속적인 명예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특정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정부나 사법 체계에서 탁월한 지위를 얻은 사람들을 우러러봅니다. 그러나 최종 가치, 즉 명예의 기초라고 해야 할 것은 국가에 대한 충실성입니다. 계약.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래서 그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명예를 무엇보다도 토라 준수에 기초한 것으로 여기겠다는 헌신을 키우려고 노력합니다. 그 후에는 이생에서 다른 방법으로 성취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자, 벤 시라, 비록 그가 성경의 잠언을 많이 인용하기는 하지만, 여러 면에서 당신은 벤 시라를 잠언에 대한 후기 주석으로 읽을 수도 있고, 특정 잠언에 대한 반성이나 성찰의 결과로 발전된 지혜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많은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에서는 하지 않지만 벤 시라(Ben Sira)가 하는 한 가지는 지혜와 율법을 명시적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명시 적으로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벤 시라(Ben Sira) 24장에서 벤 시라는 지혜를 의인화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내가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안식처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구상의 모든 민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누구에게 할당된 영토에 집을 지어야 합니까? 그러자 만물의 창조주께서 나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이가 나의 장막을 치시고 이르시되 너는 야곱 안에 거하라 하셨다. 이스라엘이 당신의 유산을 받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나는 시온에 세워졌습니다.

그분은 내가 사랑하는 성을 나의 안식처로 삼으시고 예루살렘에서 나의 권위를 세우셨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당신의 기업으로 택하신 백성 가운데서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뿌리를 내렸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이 지혜의 연설의 시작 부분에서 벤 시라는 국제적인 지혜를 끌어들이는 경향에도 불구하고 지혜의 고향이 바로 여기 예루살렘에 있다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른 지혜의 거처의 진원지이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모든 나라 가운데서, 다른 모든 나라 중에서,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같은 지혜 이야기의 끝에서 벤 시라(Ben Sira)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덧붙입니다. 지혜의 여인에 대해 말하자면, 이 모든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언약 두루마리에 있고, 모세가 우리에게 명령한 율법과 상속 재산에 있습니다. 야곱의 회중 중에서.

따라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지혜 전통에 낫설었을 방식으로 벤 시라는 지혜, 즉 이 의인화된 여인을 토라와 명시적으로 식별하며 이 두루마리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지혜를 원하신다면, 그가 실제로 이 시의 앞부분에 나열했던 모든 지혜의 축복을 원하신다면, 그것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곳이 출발지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율법과 율법의 실행에서 그들을 파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의 책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예를 들어, 그는 책 초반부에서 지혜를 찾고 싶다면 계명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지혜를 엄청나게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책 전체의 3분의 1쯤에서 우리는 모든 지혜에는 율법을 행하는 것이 포함된다는 말씀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벤 시라에게 있어서 토라를 준수하는 삶은 모든 지혜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토라 준수에서 멀어지면 지혜에서도 멀어집니다.

자, 이것은 기원전 200년에 중요하고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25년 후 대제사장이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토라를 이 땅의 헌법으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테네 헌법을 모델로 한 헌법을 사용하여 예루살렘을 재건할 것입니다. 그래서 벤 시라는 토라를 뒤로 하자마자 지혜도 버리는 것이라고 말하는 매우 보수적인 목소리입니다.

벤 시라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우리의 주요 기준 틀이 신약성서, 특히 로마서에서 기본적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인상을 주는 바울인 경우에 우리를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법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단지 지켜질 수 없습니다.

지킬 수 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러나 Ben Sira는 우리에게 매우 다른 그림을 제시합니다. 그는 법이 실현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읽었고 실제로 그는 신명기 30장에서 이것을 바로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 30장에서 확실히 읽습니다. 확실히 오늘 내가 당신에게 명령하는 이 계명은 당신에게 너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너무 먼 것도 아닙니다. 내가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느니라.

이제 너와 네 후손이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선택하라. Ben Sira는 이 언어를 반영합니다. 그것은 신명기 30장에 대한 주석과 거의 같습니다. 태초에 인류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며, 인간을 자유 선택의 힘에 맡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한다면 계명을 지킬 수 있으며, 충실하게 행동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앞에 불과 물을 두셨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든 손을 뺄 수 있습니다. 삶과 죽음이 인간 앞에 있다.

그들은 원하는 대로 부여될 것입니다. 따라서 벤 시라는 신명기에서 밝혀진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확고한 확신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법은 가능합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또한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은 믿을 만한 것입니다. 또한 벤 시라(Ben Sira)에서 우리는 그가 신명기 27~30장, 27~30장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토라 준수와 준수 실패의 확실하고 확실한 결과, 즉 토라를 행하는 사람들을 위한 축복의 약속을 반영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 토라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약속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벤 시라의 첫 장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쁨과 기쁨과 장수를 가져다준다는 것을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결국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그들은 죽을 때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책이 끝날 무렵, 당신이 주님을 경외한다면 당신에게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가지고 있다면 도움을 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축복의 과수원과 같아서 어떤 영광보다도 사람을 더 풍성하게 덮느니라.

벤 시라(Ben Sira)는 아담의 범법으로 인해 모든 사람의 삶이 어려워졌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 시라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삶의 범위 내에서 정의를 위해, 선과 악을 위해 모든 일을 행하신다고 믿습니다. 신명기에서 약속한 대로. 선량한 사람들이 어려움에 직면할 때 Ben Sira는 용광로에서 금을 시험하는 것과 같은 전통적인 이미지를 사용하여 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금은 불 속에서 시험을 받고 ,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사람들은 굴욕의 풀무 속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여 그를 의지하라 그리하면 너희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Ben Sira의 계획 중 마지막 부분은 많은 엘리트들이 말하기 시작하는 것에 반대하여 토라 준수를 장려하는 그의 찬송입니다. 벤 시라 44장부터 49장 전체를 차지합니다. 이 긴 찬송에서 벤 시라는 본질적으로 아담부터 가장 최근까지 이스라엘의 신성한 역사를 연습합니다.

실제로 50장에서는 가장 최근의 대제사장인 시몬 2세, 의로운 시몬을 찬양하는 찬송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개작 전반에 걸쳐 흐르는 요점, 즉 주제라고 해야 할 것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법을 지킨 사람들이 명예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우리는 계명을 부지런히 지키고 주님의 율법에 대한 열심을 나타낸 아브라함, 모세, 아론, 비느하스를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을 기념하여 그들의 영광을 팔았고, 다른 신들을 따른 까닭에 그들의 영광을 버렸으며, 토라의 계명을 버리고 궁극적으로 온 세상에 재앙을 가져온 왕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가. 이제 벤 시라(Ben Sira)는 51개 장의 자료로 다른 중요한 주제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듯이, 이것들은 가정 생활, 사회 생활, 정치 생활, 경제적 모험과 관련된 주제이며 기본적으로 청년이 인생을 현명하고 유익하게 살아가기 위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그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부모를 보살피고 존경하며, 자신의 자녀를 세심하게 양육하고, 교육과 양육에 깊이 투자하고, 자녀(아들과 딸 모두)를 규율하고 보살피는 데 상당한 관심을 기울입니다. 이제 여담으로 말씀드리지만, Ben Sira를 가장 곤경에 빠뜨리는 것은 여성에 대해 그가 말한 내용입니다. 여성에 대한 문화적 고정관념과 여성에 대한 문화적 불안을 크게 반영하면서 그는 남성들에게 아내와 특히 딸에 대해 매우 조심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 사회에서는 다른 남자의 접근에 성적으로 취약한 딸이 아버지의 집안에 불명예를 가져왔고 아버지가 딸에게 적합한 남편을 찾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맥락에서 Ben Sira는 고집 센 딸과 그녀가 가정에서 얼마나 큰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 과장된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의도적으로 과장된 표현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Ben Sira는 또한 자신의 은인을 존중하고 친구, 은인 및 수혜자를 선택할 때 신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잠언 시대의 문화 변화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적어도 잠언에서 발견한 것보다 벤 시라의 우정과 후원에 대한 그리스-로마식 배열과 정신에 대한 훨씬 더 큰 반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그는 심지어 사교 행사에서의 올바른 예절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발전이기도 한 심포지엄에 가면 그게 완전히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심포지엄은 그리스의 사교 행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물건을 흡수하세요. 벤 시라(Ben Sira)는 젊은 남성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좋은 인상을 남기는 것임을 확인하라고 조언합니다. 네 앞에 차려진 맛있는 음식이나 포도주나 네게 있는 것 때문에 하지 말고 오직 자신을 지켜 모든 일에 절제하여 예의 바르고 공손하며 교양 있는 사람으로 보이도록 하라.

그는 실제로 위대하고 강력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에 관해 학생들에게 경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소비합니다. 한편으로는 그것이 사회 발전의 길이다. 그것이 경제적, 정치적 발전의 길이다. 반면에 벤 시라(Ben Sira)가 말했듯이 이는 곧 칼날 위를 걷는 것과도 같습니다.

넘어지면 반으로 자랄 것입니다. 그는 경제 문제와 직원 처우에 있어서 공정성을 촉구합니다. 그는 이런저런 채권자에게 종속되기보다는 재정적으로 독립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의 가치를 장려합니다.

벤 시라에게서 우리는 유대인의 생활 방식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헌신과 다른 나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지혜에 대한 개방성이 결합된 것을 발견합니다. 이는 물론 잠언과 구약의 유산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유대인의 지혜 전통, 국제적인 지혜 전통을 폭넓게 받아들인다. 한편으로

그는 이스라엘의 경전 유산에서 잠언과 신명기와 같은 다른 본문을 광범위하게 인용합니다. 반면에 그는 자신과 같은 서기관, 자신과 같은 성인이 외국 땅을 여행하여 서기관이 모든 민족 가운데 선과 악을 시험하고 지혜에서 귀중한 것을 모을 수 있어야 함을 말합니다. 자신의 가르침에 포함시키기 위해 다른 나라의 사람들.

그리고 벤 시라(Ben Sira) 자신도 분명히 많은 외국의 지혜, 외국의 상식적인 지혜를 자신의 가르침에 통합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정에 대한 그의 가르침을 6세기 그리스 현자 테오그니스의 애가와 나란히 놓는다면 상당한 중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4세기 전에 테오그니스가 글을 썼을 때, 아마도 상당한 의존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Ben Sira는 그리스 지혜로부터 신뢰할 수 있으면서도 조심스럽고 조심스럽고 현명한 친구가 되는 방법에 대한 이 자료를 어떻게든 배웠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위대하고 강력한 자들을 다룰 때, 발전의 약속과 파괴를 약속하는 벤 시라의 경고의 말을 페보스의 지시로 알려진 이집트의 문헌과 비교해 본다면, 여러분은 다시 수많은 유사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행을 많이 한 현자 벤 시라(Ben Sira)가 이집트 문헌을 인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벤 시라에게 있어서 지혜, 서기관의 삶, 현자의 삶, 학자의 삶은 단순히 머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영혼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그의 학생들에게 현명한 자들과의 연구와 대화와 함께 기도를 지혜의 필수적인 원천으로 삼으라고 명시적으로 말하거나 지시하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어, 그는 39장에서 서기관들이 일찍 일어나 그들을 지으신 주님을 찾고 지극히 높으신 분에게 기도하겠다고 결심할 것이라고 썼습니다. 그들은 입을 열어 기도하며 자신들의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할 것입니다. 위대하신 주님의 뜻이라면, 그들은 이해하는 영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지혜의 말을 쏟아내고 기도로 주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그들의 추리와 지식은 올바른 길에 머물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깊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조금 더 일찍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높으신 분에게 기도하여 그분께서 여러분의 길을 진리로 바로잡으시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지혜는 단지 연구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계시하실 내용의 결과입니다. Ben Sira는 또한 그의 교육에서 의식과 예배 행위를 위한 자리를 마련합니다. 그는 성전과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을 매우 지지하며, 현자가 되는 것과 성전 예배 생활에 온 마음을 다해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 사이의 연관성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촉구하고 모범을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중요한 본문은 벤 시라(Ben Sira) 7장에서 나옵니다. 거기서 그는 이스라엘의 핵심 본문인 쉘마(신명기 6장)의 일부를 취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한 분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는 그 내용을 성전과 그 직원들에 관한 지시 사항과 혼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존재로 주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제사장들을 존경하라는 말씀을 읽습니다. 힘을 다하여 너를 지으신 이를 사랑하고 그의 사역자들을 버리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제사장을 존경하라.

명령받은 대로 제사장에게 그 몫을 주어라. 그 구절에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쉘마의 한 구절을 낭송하고 이어서 성전과 그 직원을 존중하는 것과 관련된 일종의 대응말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둘이 매우 밀접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벤 시라(Ben Sira)로부터 사원에서 일어난 의식의 활기와 경외감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그림을 얻습니다. Ben Sira는 이 쇼가 빈 쇼가 아니었던 사람의 직접적인 계정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공허한 의식이

아니라 깊은 종교적인 경험,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강력한 만남이었습니다. 50장에서 벤 시라는 성전 희생을 기억합니다.

학자들은 그것이 단지 매일의 제사인지, 아니면 유명한 대제사장인 시몬 2세, 의로운 시몬의 지도 아래 속죄제의 날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몬이 자기 영광의 옷을 입고 완전한 영광으로 옷을 입고 거룩한 제단에 올라갔을 때 성전 뜰에 영광을 돌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모두 영광 가운데 있었고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의 제물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단 봉사를 마치고 제단 밑에 전제주를 부었습니다. 이는 만유의 왕이신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향기로운 향기였습니다. 그러자 아론의 아들들이 환호했고, 모든 백성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자기들의 주, 곧 전능자,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은 수금을 타며 그들의 목소리로 찬양을 불렀습니다.

감미로운 멜로디를 풍성한 사운드로 만들어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백성은 주의 예배의 순서가 끝날 때까지 자비로우신 분 앞에 기도를 드렸다. 그러자 시몬이 내려와 이스라엘의 온 회중 위에 손을 들고 입으로 여호와께 축복하고 그 이름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축복을 받기 위해 두 번째로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것은 벤 시라(Ben Sira) 5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전 숭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벤 시라(Ben Sira)가 이해한 대로 마음과 몸 전체와 정신을 다해 참여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한편으로 벤 시라는 도덕적 행위가 의식적 의미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자신도 시편과 선지자들을 통해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벤 시라 35장에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많은 제물을 바친다고 썼습니다.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은 행복을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갚는 사람은 가장 좋은 꽃을 바칩니다. 그리고 자선 행위를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의식적 의미를 부여하는 그러한 진술, 즉 도덕적 행위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진술은 의식 행위가 가질 수 있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결코 의식 행위의 중요성을 폄하하지 않습니다. 벤 시라(Ben Sira)에 대한 희생 숭배에는 가치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벤 시라(Ben Sira)로부터 이 기간 동안의 경건은 토라, 이웃의 선, 하나님과의 양육적인 관계를 실천하고 권리에 중심을 둔 삶과 관련이 있다는 의미를 얻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전체의 일부였습니다. 특정 종교 개혁 전통을 따르면 시민법, 도덕법, 의례법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것이 벤 시라에게는 모두 하나의 전체의 일부였습니다. 어떤 측면도 무시할 수 없으며, 한 영역, 한 영역이라고 주장되는 영역의 결함을 다른 영역에서 조치를 수행하여 보완할 수도 없습니다.

토라는 하나였으며 주님 앞에서 명예를 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실천해야 했습니다. 이제 나는 본질적으로 외경에서 발견되는 역사서인 마카베오서 1권과 2권을 살펴볼 것입니다. 내가 이전 강의에서 언급했듯이, 이 책들은 함께 모아서 신약중간기 이야기에서 정말 격동기였던 기원전 175년에서 141년 사이의 예루살렘과 유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두 권의 책인 마카베오서 1서는 기원이 다르고 이 이야기를 다루는 각도도 약간 다릅니다. 사실 마카베오 2서는 구레네의 야손이라는 사람이 쓴 그 시대의 5권짜리 긴 역사를 요약한 것입니다. 요약본을 작성한 사람이 자신의 출처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이 다섯 권의 두루마리를 가져와 하나로 압축하는 과정에 대해 어느 정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책은 원본이 그리스어로 쓰여진 것처럼 그리스어로 쓰여졌지만, 요약이 어디서 일어났는지 실제로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예루살렘이나 유대에서 유래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그 주민들 중 상당수는 이 시점에서 그리스어에 익숙했을 것입니다. 마카베오 2서의 연대는 그 책에서 이야기가 끝난 다음 해인 기원전 160년부터 기원전 63년 사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날짜나 해당 범위의 가장 빠른 부분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구레네의 이아손은 이야기가 끝나는 지점과 매우 가까운 곳에서 자신의 역사를 기록했을 수도 있지만 요약자는 아마도 나중에 나왔을 것입니다. 마카베오서 2서의 서문이 진짜 편지라면, 이 편지들 중 하나가 이 이야기를 보내거나, 이 요약문을 보내거나, 이 요약문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요약문이 기원전 124년 이전 어느 시점에 쓰여졌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봉헌절인 하누카 준수를 더욱 광범위하게 장려하고, 더 큰 유대인 공동체가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 최근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행하신 일을 인정하는 방법으로 기념하도록 하고, 아마도 심지어 그 일이 일어난 왕조를 합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마카베오 2세는 마카베오 반란에서 탄생한 하스몬 왕조를 합법화하는 데 특별히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결코 하스몬주의자를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마카비 1서의 저자와 달리 명시적으로 하스몬주의자를 지지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마카베오 1서는 왕조의 역사이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제사장 가문인 마타디아와 그의 다섯 아들인 유다, 엘아자르, 요한, 요나단, 시몬이 어떻게 대제사장으로 통치하고 결국 왕이 될 왕조를 세웠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기원전 141년부터 기원전 63년까지 로마가 개입했습니다. 그리고 하스몬 왕조에 대제사장 직함을 회복시키겠지만, 이 하스몬 왕조에게 왕의 직함을 회복시키지 않고 오히려 세속 정부를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길 것입니다. 마카비 1서는 다시 이야기가 기원전 141년에 끝나므로 그 이후 어느 때라도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책은 아마도 기원전 63년 이전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로마가 그 시점에서 유대 지도자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개입했을 때 스스로 약간의 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그러나 마카베오 1서는 요한 히르카누스의 통치가 끝난 후에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104년 이후부터죠.

마카베오 반란의 마지막 위대한 영웅의 아들이 왕조를 이끌던 때보다 왕조를 강화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던 시기였습니다. 이 두 책이 말하는 이야기는 서로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 그 이야기들을 섞는 것을 주저하지만 역사가들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해당 기간 동안의 유일한 소스입니다.

Josephus 자신은 1st Maccabees에 크게 의존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이야기는 이 시기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기원전 175년에서 141년 사이에 유대에서 일어난 사건.

두 책이 정확히 겹치지는 않습니다. 2nd Maccabees는 우리에게 Maccabean 반란의 전편을 더 많이 제공합니다. 그것은 기원전 17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st Maccabees는 기원전 168년경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반란과 그 여파를 서술하는 것만큼 반란을 촉발한 원인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반대로 마카베오 2서는 그 이야기와 함께 기원전 161년에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카베오 1서는 군사 영웅 유다의 성공적인 성전 탈환과 그리스-시리아의 위대한 장군 니카노르의 패배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전체 이야기를 말하고 싶어합니다. 1 마카베오는 그의 살아남은 형제들이 어떻게 예루살렘과 유대의 복지에 기여하고 온 백성이 마지막 살아남은 형제인 시몬과 그의 아들들을 주권자로 인정할 정도로 국가의 대의를

발전시켰는지에 대한 전체 이야기를 말하고 싶어합니다. 그들이 유대에 가져온 모든 유익을 고려하여 백성의 합법적인 통치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형태는 우리를 다층적인 갈등으로 데려갑니다.

첫째,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였던 두 왕조 사이의 갈등이 있습니다. 시리아와 바빌로니아를 통치한 셀레우코스 왕조와 이집트를 통치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그 사이에 있는 팔레스타인 땅은 다툼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한편, 알렉산더의 장군들은 그의 제국을 분할하면서 함께 셀레우코스 1세가 팔레스타인을 통치할 것이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을 유지했고, 그의 후계자들은 팔레스타인을 유지했습니다. 이야기 뒤에는 이러한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벤 시라(Ben Sira)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미 언급한 예루살렘 내부의 갈등, 즉 토라를 지키며 국가 전체가 계속해서 율법에 의해 통치되기를 원하는 보수적인 유대인들 사이의 갈등도 있습니다. 모세 율법과 동화를 통해 국가의 최선의 이익이 어느 정도 충족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진보적인 유대인들. 그들은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진보적인 유대인들 사이에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국가의 최선의 이익을 실제로 확보하려면 얼마나 멀리 가야 합니까? 그래서 나는 이미 알렉산더의 죽음 이후 그의 장군들이 그의 왕국을 나누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은 기원전 198년까지 이집트의 그리스 왕들의 통치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지배하에 머물렀습니다. 그 해 안티오코스 3세는 마침내 프톨레마이오스의 군대를 물리치고 팔레스타인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는 자신의 왕국을 위해 팔레스타인 승리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안티오코스 3세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법에 따라 계속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위에서 내려오는 그들의 삶의 방식을 갑자기 바꾸려는 자극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예루살렘 내부, 예루살렘의 강력한 가문들 내부의 분쟁입니다. 오니아스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오니아드 가족.

이것은 대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인 도비아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도바야드 가족은 성경에서 알려진 암몬 사람 도비아로 때때로 확인됩니다. 예루살렘 성직자 통치의 외부인 가족이지만 유대 민족의 권력 중개인이 되려는 상당한 야망을 가진 가족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들은 다른 가족보다 정치적으로 훨씬 더 정통합니다. 따라서 마카베오 2서가 열리면서 시몬이라는 토비아아드가 대제사장 오니아스 3세라는 오니아드를 상대로 역할을 맡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이먼은 성전에 신성하지 않은 자금이 있다고 말함으로써 셀레우코스 군주(이 경우에는 셀레우코스 4세)의 환심을 사려고 합니다 .

그리고 나의 왕이신 당신께서는 그들에게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셀레우코스 4세는 돈이 나타날 수 있는 곳마다 매우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가족, 즉 그의 왕조는 기원전 188년에 겪은 끔찍한 패배 이후 로마에 조공을 바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셀레우코스 4세는 재무장관으로 추정되는 헬리오도로스(Heliodorus)를 신전으로 보내어 자금을 조사하고 그가 압수하는 데 적합한 자금을 모두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이 에피소드의 결론은 Heliodorus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려고 할 때 Heliodorus에게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카베오 2서의 저자에 따르면, 그가 성전의 신성함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말을 탄 천사들이 그를 때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빈손으로 돌아갔고 아마도 셀레우코스 4세를 죽이려는 음모에 연루되어 셀레우코스의 형제인 안티오코스 4세가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니아스 3세는 벤 시라가 그토록 칭찬했던 대제사장인 그의 아버지 시몬 2세처럼 보수적인 대제사장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니아스에게는 원래 이름이 예슈아(Yeshua)였지만 어느 시점에 이름을 야손으로 바꾼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오니아스의 동생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그는 진보적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 체육관을 포함한 그리스 기관을 갖춘 그리스 도시 방향으로 예루살렘을 개혁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곳에서 도시의 젊은이들은 공공 비용으로 그리스 문화, 그리스어, 선수가 될 수 있는 모든 예술과 기술을 교육받을 수 있었습니다. 국제 세계에서, 이제 야손은 예루살렘의 비종교적 개혁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이슨은 예루살렘의 엘리트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었으며, 이것을 그의 형에게서 대제사장직을 매수할 수 있을 만큼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는 제안을 가지고 안티오코스 4세에게 갔다가 새 대제사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은 망명지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의 식탁에 모인 유월절은 오히려 긴장감이 넘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이슨은 개혁을 추진하여 내가 말했듯이 그리스 교육, 그리스 운동과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포함한 그리스 문화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기 위한 기관인 체육관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헌법에 기초하여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의 새로운 그리스 도시 평의회에 참여할 새로운 원로원 의원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불과 3년 후, 토바이드 가문은 이러한 개혁을 추진하고 예루살렘 정치에서 더욱 직접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넬라오스라는 이름의 또 다른 신부를 찾습니다.

그리고 트로이 이야기에 조금이라도 익숙하신 분이라면 메넬라오스도 그리스식 이름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여기 또 다른 진보적인 신부가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를 출생으로 명명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자신의 이름을 바꿨을 것입니다. 하지만 메넬라오스는 새로운 일을 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종교개혁에도 나선다. 그는 제이슨조차 넘지 못할 선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메넬라오스 치하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 주민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을 위한 예배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마카베오서 1서의 저자와 다니엘이 이 사건들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멸망의 가증한 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유력한 후보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 즉 예루살렘의 동등한 시민이 예배 장소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외국 신들을 위한 새로운 제단을 세우는 것입니다. 글썄요, 이건 너무 지나친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에서는 서로 다른 두 전선에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한편으로 Jason은 그의 타이틀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Jason은 Tobaiyot 가문의 소외된 형제인 Hyrcanus라는 남자의 지원을 얻습니다.

따지면 정말 연속극입니다. 이아손은 안티오코스 4세가 죽었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메넬라오스에 맞서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돌아옵니다. 그는 그 공백기를 이용하여 자신을 다시 주장하고 의심할 여지 없이 다음 셀레우코스 왕조와 협상하여 그곳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국민들은 반발한다. 그들은 헬레니즘적인 대제사장들을 지겹게 여겼습니다. 그날이 끝날 무렵, 이아손과 메넬라오스는 모두 에이커에 포위되어 있으며 안티오코스 4세가 그들을 구출하러 와야 하는데, 안티오코스는 그렇게 합니다.

다음은 아마도 고대 세계에서 최초로 잘 기록된 종교적 박해 사건일 것입니다. 안티오코스는 메넬라오스를 해방시켰을 때, 방금 일어난 구출

작전에 대한 대가를 누군가가 지불해야 했기 때문에 먼저 성전에서 엄청난 돈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메넬라오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토라 준수를 불법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마도 메넬라오스와 같은 사람들, 아마도 메넬라오스 자신으로부터 이 모든 혁명의 중심에는 그 오래되고 야만적인 원주민 생활 방식에 대한 사람들의 애착이 있다는 조언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집착만 제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예루살렘과 유대를 영광스러운 미래로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목인하라는 요구에 굴복하지 않음으로써 언약에 대한 충성을 보여주는 잔인한 순교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은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어린 아들들도 목에 걸었으므로 예루살렘 성벽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메넬라오스와 안티오코스의 부하들이 율법의 모든 사본을 파괴하려고 돌아다닐 때, 노인들은 토라의 사본을 보호했다는 이유로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카베오서 2서에 엘르아자르라는 늙은 성직자와 일곱 형제와 그들의 어머니에 관한 매우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들 모두는 지금 성전에 세워진 모든 것에 막 희생되었을 돼지고기를 한 입도 먹기를 거부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항복의 표시로 돼지고기를 한 입도 먹지 않고 대신 고문을 받아 죽었습니다.

그 후, 마카베오 반란이 실제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교에 대한 동일한 탄압이 배후지로 나가고 예루살렘 주변 마을로 퍼집니다. 왕의 관리가 모딘이라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는 그곳의 제사장인 마타시아스라는 지도자 장로를 초대하여 가장 먼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보여주고 와서 임시 제단에서 외국 신에게 희생을 바치도록 했습니다.

물론 Mattathias는 거절합니다. 그는 신실한 토라를 준수하는 충성스러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마을의 어떤 기회주의자는

군주들의 환심을 사기로 결심하고 가장 먼저 희생을 바치기 위해 나섰습니다.

나중에 피네아스의 마카베오 1서의 저자를 생각나게 하는 행위에서 마타티아스는 칼을 들고 제단에서 두 칼을 동시에 꿰뚫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마카베오 반란으로 알려지게 되는 일을 화려하게 시작합니다. 그는 법을 준수하고 나무나 금속으로 만든 모든 것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모든 사람을 광야에서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굴복하고 자녀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는 배교한 유대인들을 공격함으로써 시작합니다. 그와 그의 부하들은 소년들에게 강제로 할례를 행했고, 당신들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그리고 시골 전역에서 인력이 부족한 그리스-시리아 수비대를 제거함으로써.

습격이 성공할 때마다 그 수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안티오코스는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너무 작은 군대를 계속해서 파견합니다. 따라서 그들이 항상 더 많은 수에 직면하더라도 Mattathias와 그의 아들들은 Mattathias가 이 전쟁 초기에 죽었기 때문에 Greco-Syrian 군대에 대한 승리를 계속해서 누리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신전을 되찾고 메넬라오스가 그곳에 놓은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따라 제사를 드리는 올바른 리듬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군사 활동은 유대의 생애를 거쳐 그의 형제 요나단과 그의 남동생 요나단의 생애까지 계속됩니다.

하지만 160세쯤 되면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나단과 그의 형,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시몬은 셀레우코스 군대에 맞서 전쟁을 통해 해야 할 일보다 협상을 통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셀레우코스 왕조 자체가 왕좌에 대한 경쟁 주장자들 사이에 분쟁의 시기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 경쟁 주장자들 각각은 유대를 싸움에서 동맹자로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따라서 요나단은 마침내 대제사장이라는 칭호와 어느 정도의

내부 정부에 대한 권리를 얻을 때까지 다른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형제는 그리스-시리아 군인과 용병의 마지막 수비대를 예루살렘의 요새인 에이커에서 제거할 권리를 얻습니다.

이로써 유대에는 400년 만에 정치적 독립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카비 1서의 저자가 말했듯이, 이방인의 멍에는 적어도 잠시 동안은 풀려났습니다. 다음 세션에서 우리는 두 번째 마카비서와 첫 번째 마카비서의 특별한 취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하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각각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야기나 이야기의 일부를 전달합니다. 왜냐하면 두 작가가 글을 쓰는 목적과 이유가 다소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고 다음 강의에서 외경을 향한 행진을 계속할 것입니다.

외경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David deSilva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2, 자세히 살펴보기: 첫 번째 에스드라, 벤 시라, 첫 번째 및 두 번째 마카비입니다.